서른 넷에 결혼도 뒷전 “야구가 내 애인”

스포츠동아가 한국여자야구를 응원합니다

고양 레이커스 ‘만능에이스’ 유경희

투타는 물론 코치까지 완벽…팀 안방마님
CMS전 2회초 만루 싹쓸이로 승리 이끌어

13년 소프트볼 그만두고 야구재미 푹빠져
엄마의 성화도 “야구가 재밌다”로 일단락

18일 전북 익산 국가대표야구훈련장은 쌀쌀했지만 2012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패자 결승에 임하는 고양 레이커스와 서울 CMS 선수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기면 최종 결승에 올라가는 일전이기에 선수들은 끝까지 치열했다.

레이커스는 1회초 3점을 냈으나 1회말 곧장 1점을 허용했다. 2회초 반격에서 볼넷 3개로 만루 찬스를 얻었다. 3번 조정화의 중전적시타로 1점을 보태고, 다시 만루. 이어 타석에 등장한 4번 유경희(34)는 바뀐 투수 김주현의 초구를 받아쳐 좌중간을 가르는 대형 타구를 만들어냈다. 여자야구에서 좀처럼 나오기 힘든 큰 타구에 레이커스 주자들은 신나게 뛰어 모두 홈으로 들어왔다. 유경희도 홈으로 들어와 순식간에 4점이 났다. 기록상 중계 에러를 줘 ‘인사이드 파크 만루홈런’은 아니었지만 그랜드슬램이나 마찬가지였다. 유경희는 2회말 1사부터는 구원투수로 나섰다. 3.2이닝 7실점(5자책점)했지만 탈삼진 4개를 솎아내며 19-11, 5회 콜드게임을 이끌어냈다. 유경희의 게임이었다. 한마디로 클래스가 달랐다.

●한국여자야구의 만능선수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참가팀은 총 28개에 이른다. 그러나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비밀리에’라는 종갓집으로 수렴된다. 실제 야구선수 출신 안향미(현재 탈퇴)의 주도로 만들어진 비밀리에 출신 선수들이 다양한 분파를 이뤄 새로 야구하고 싶은 여성들을 규합해 세를 불린 것이다. 현재 여자야구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부분 비밀리에 출신이고, 유경희도 그렇다.

유경희는 레이커스의 에이스이자 유격수이자 포수이자 4번타자이자 코치에 해당하는 핵심전력이다. 그녀는 CMS전을 앞두고 인터뷰하던 도중 “훈련을 해야 된다”며 필드로 나갔다. 알고 보니 자기 훈련이 아니라 동료들의 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유경희는 손수 뜬공을 쳐 줬는데 여자야구에선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선수도 그리 흔치 않다.

레이커스의 확실한 에이스이지만, CMS전에는 선발로 나가지 않고 마무리로 대기했다. 그러나 언제나 가장 많은 이닝을 던져야 할 사람이 자기란 것은 알고 있다. 바로 전날 열린 일본과의 한·일 올스타전 등판을 굳이 마다한 이유도 18일 패자 결승전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소프트볼에서 야구로, “재밌어서”

유경희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로 고1 때서야 뜻을 이뤘다. 반장까지 했지만 소프트볼이 더 좋았다. 소프트볼로 대학까지 진학했고, 국가대표도 해봤다. 졸업하고 입단할 실업팀이 사라져 2년간 방황도 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2007년 경북체육회가 생겨 다시 소프트볼과 연을 이어갔다.

13년간 해왔던 소프트볼은 2010년 접었다. 그 대신 두 가지 재미를 얻었다. 하나는 신정중학교에 소프트볼 코치로 들어가 아이들 가르치는 재미를 익혔다. 또 하나는 소프트볼 대신 야구하는 재미를 알았다. 그때 비밀리에에 들어갔고, 올해 초 레이커스 창단의 산파 역할을 해 지금에 이르렀다.

1경기에 130구를 던진 적도 있다. 직구, 슬라이더 외에 체인지업을 배우려고 주성로 감독(한국여자야구연맹 경기이사·전 남자야구 국가대표 감독)을 쫓아다닌다. 야구하는 재미에 결혼도 뒤로 미뤘다. 유경희는 “집에서 엄마는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고 하지만 나는 재밌다”고 짧지만 분명하게 말한다. 그녀에게 야구는 종교이자 애인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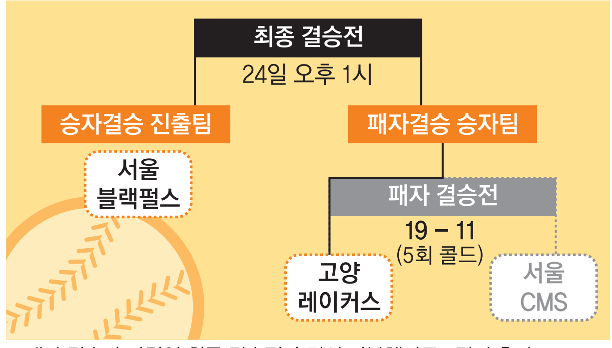
익산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트위터@matsri21

◀ 소프트볼 국가대표 경력의 유경희(고양 레이커스)는 여자야구에서도 ‘군계일학’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 나선 유경희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익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경기결과 〈18일 일요일〉

팀	1	2	3	4	5	6	7	R	
레이커스	3	5	8	1	2			19	5회 콜드게임
CMS	1	4	0	5	1			11	

●2012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결승 대진표



※패자 결승 승자팀이 최종 결승전 승리시 더블헤더로 1경기 추가 (승자 결승 진출팀에 어드밴티지 1승 부여)

■ 김수완 익산시야구협회 경기이사

김수완 익산시야구협회 경기이사의 모습. 김 이사는 2012 LG배 한국여자야구 대회의 성공을 이끌고 있는 숨은 주역이다. 익산 | 김민성 기자

“폭우속 선수들 열정보고 큰 감명 그날 이후 여자야구 골수팬 됐죠”

익산야구장 개방…전광판 감독 등 도우미 자청

김수완 익산시야구협회 경기이사는 2012 LG배 한국여자야구 개막 이후로 주말이 더 바빠졌다. 원래 몸담았던 사회인야구를 새벽 시간대로 옮겨 먼저 하고, 여자야구선수들이 오전부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익산 국가대표야구훈련장을 비워주고 있다. 여자야구 경기가 시작되면 전광판 감독까지 도맡기에 주말을 야구장에서 보내다시피 한다. 심지어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뛴 아들 동희 군까지 볼보이로 야구장에 데려온다.

김 이사가 여자야구에 반한 것은 지난해 7월 열린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에서였다. “장마철이었죠.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남자들이라면 그 비 맞고 야구 못 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여자선수들이 그 비를 다 맞으며 슬라이딩까지 하더라고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익산야구장은 2011년 개장 이후 여자야구에 벌써 3차례나 문호를 열었다. 지난해 7월 개최된 익산시장기는 올해 2회 대회를 또 열었고, 올해는 LG배가 새로 개최됐다. 전북 지역에서 군산야구장 다음으로 시설이 좋은 익산야구장이 순수 아마추어 여자야구선수들에게 이렇게 개방된 것은 사실 특혜에 가깝다. 원래 익산야구장은 국가대표 훈련시설 용도로 건설됐고, 프로 2군과 대학리그 및 고교 주말리그를 위해 활용되는 구장이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이한수 익산시장이 익산을 여성친화도시로 정했다. 덕분에 여자야구연맹과 얘기가 잘 통한다. 또 이선호 익산시야구협회장이 익산시와 연맹을 잘 연결해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여자야구 덕분에 익산시의 여성친화적 이미지도 높아지고 있다. 김 이사는 “익산이 여자야구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며 장밋빛 내일을 기대했다.

익산 | 김영준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